

단기 선교팀 신청서 (2)

출력날짜 : 2018-05-13

※ Team No : 2018-022				선교위원회 확인		
1. 신청부서 :		(팀명 : 청년부1팀)		담당	분과장	위원장
2. 선교국가 : 미얀마		3. 사역지 : 미얀마		4. 공 항 :		
5. 사역기간 : 2018년 08월 20일 (월) ~ 2018년 08월 25일 (토) - 5박 6일						

이성득 5/20 김명환 이강석 5/20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지역	CMTC		교적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차	2차						
1	팀장	사무 안수집사	문연식	13		○	○	93-1008					
2	총무		백종호	3		X	X	89-750					
3	서기		김한솔	14		X	X	93-694					
4	회계		장민지	8		X	X	90-1056					
5	의료		김지연	14		X	X	91-1182					
6	팀원		김조한	5		X	X	2014-0179					
7	팀원		신철민	9		X	X	79-156					
8	팀원		이에주	2		X	X	84-1116					
9	부서기		박지은	5		X	X	97-281					
10	부회계		전동환	4		X	X	96-731					

※ CMTC 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2차심사후 3차심사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2017. 4. 9 양식변경]

교구(부서)장	교구(교육)위원장

천사의 얼굴을 그린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사역에 입했다.

여정의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 되어 사역에 입한다.

사역을 준비하느라 잠도 거의 자지 않나보다. 다음날 일정을 위한 연습에 열심인 팀원들에게 3일째 되는 날밤 1시쯤 할 수 없이 “이제 연습 그만하고 잠을 좀 자야 하지 않겠어요?” 부탁했지만 끝난 것은 2시간이나 지난 후였다.

우리팀원들 모두 피곤하지만 선교를 다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약 천사의 얼굴을 그린다면 저런 얼굴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전에는 십방사역. 노방전도. 축호전도라 어린이 사역을 준비 하고, 오후에는 어린이 사역에 정말 열심이다. 내가 오히려 도전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런 중에도 우리의 피로를 잊게 하는 것은 낮선 이방인인데도 몇 번 봐서 안다고 얼굴을 기억해주고, 멀리서 부터 달려오면서 손을 흔들고, 달려와 안기며, 한사람도 빠짐없이 하이파이브하고, 모두가 악수해달라고 매어달리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미안과 복음화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다.

“이 어린 생명들이 많을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미안과 교회의 천국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출발할 때 미안과 딸딸레이 지역 일기예보에 목, 금, 토 3일간 종일 비가 온다고 해서 선교팀원 모두 선교하는데 비 때문에 지장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결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세워주시고 밤에만 비가 왔다. 낮에 비구름이 새까맣게 몰려오다가도 우리 사역지 주변만 살짝 피해간다, 몇 방울만 떨어뜨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청년들과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연향팀 집사님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문연식 집사 

선교 소감문

청년1부 선교4팀
미얀마7팀 백종호

이번 선교는 나에게 큰 은혜가 많은 선교였다. 총무로 선교를 가게 되었고 책임을 가지고 선교를 처음 가게 되다보니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선교를 준비하는 때부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들에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걱정을 하나씩 해결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자인지 돌아보게 하셨다. 그럼에도 선교지에 서도 날씨가 여러 가지로 인해 내가 걱정할 때, 모두 다 해결해주시는 것을 보고 매우 감사했다.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막상 선교지에 가서 부족함을 많이 느낄 것임을 나누고 기도하고 선교지로 나아갔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놓지 못했던 것 같다. 좋은 사역과 재미있는 활동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는 있어도 그들을 말씀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임을 잊고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것 같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절실히 느꼈고 하나님께 더욱 구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느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인식하고 그것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실제로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많은 순간에 사탄이 방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실제 교회 이웃 주민의 방해도 있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도 많았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탄의 존재가 방해를 해올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임을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었고 더욱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얼마나 영적 전쟁에 무른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 영적 전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승리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교 팀이 처음 꾸러지는 순간부터 준비하는 과정, 선교지 도착하는 중에도, 선교지에서 무사히 귀국하는 순간까지 우리 선교 팀을 위해 도와주고 기도해준 우리 청년1부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많이 느낀 것 같다. 선교지에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선교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꼭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님을 느꼈다. 앞으로 내가 선교지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기도로 그 자리에 힘쓰고 임할 수 있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들고 계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선교에 함께 해야겠다.

미얀마 7팀 김한솔

저는 미얀마 선교를 다녀오고 난 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에 임했는지’,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과 내 생각, 계획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미얀마 만달레이에 도착해서 다음날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기에 순간순간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사역하는 순간에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사역을 하던 중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연합팀과 심방사역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없냐는 말에 저는 마냥 어린이 사역만 준비하기보다 진짜 미얀마 땅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방사역에 함께 갔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가정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한국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 가정 안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역평가회를 하는데 박동진 목사님께서 “미얀마 땅에 가난은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가난하지 않는데 행복한가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힘들 때마다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믿음 가정 안에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방사역 중 가장 기억에 남은 가정은 마지막 심방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는 가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을 피해서 5명의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나온 한 여자 분을 심방했습니다. 그 분의 상황과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어서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선교를 준비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내가 서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속으로 중심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였고 남은 사역에 기쁨과 최선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선교를 신청하면서 마냥 처음 선교를 갔던 기억이 좋아서 신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는 사람이 아닌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얀마 선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취볼 수 있었고 정말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해야함을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소감문

청년1부 미얀마 7팀

장민지

이번선교는 날씨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왔던 선교였습니다. 청년1부에 올라오고 처음 가는 어린이 사역이었던만큼,저는 선교 준비를 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좀 더 쉽고,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주님께 더 기도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사함을 느꼈던 부분은, 사역기간 내내 일기예보와 달리 좋은 날씨를 주셨던 것과 준비한 어린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갔던 프로그램들 모두 사역지의 어린이들이 너무 기쁘게 잘 받아들여주어서 기뻐고, 무엇보다 그 친구들이 주님께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뱀엘교회에서 했던 부흥회도, 정말 감사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주어서 좋았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감사함으로 선교를 무사히, 건강하게 한 명도 아프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기쁘고, 사역은 마치고 돌아왔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기도제목을 가지게 되었고, 선교에 대한 더욱 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선교 소감문 - 김지연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감사함, 다른 하나는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서든 '영적 전쟁이 있구나.'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의 뵈엘 교회를 가서 파우크 목사님을 만나고 청년부팀은 어린이사역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팀과 시간을 맞추어 노방전도를 다니고 가정심방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가정심방이었습니다. 심방하는 곳곳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집처럼 보이지 않는 허술한 집에서 단촐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며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많이 미안해졌습니다. 방문한 가정 중에선 아이 네 명을 양육하고 있는 어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의 폭력과 싸움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의 집을 전전하며 옮겨 다니는 어머니였습니다. 나이도 저와 얼마 차이 나지 않아 보이는데 정말 대단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제목들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큰 아이의 학비가 지원되는 승려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승려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 아이를 전학시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기도제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훌륭한 어머니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것은 뵈엘 교회 맞은편에 있는 가정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선 뵈엘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정이 있을 때마다 노래를 크게 틀어 방해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사탄이 그런 식으로까지 사역에 방해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곳에서나 영적 전쟁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선교 사역의 맡은 직분 중에 '의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심방을 할 때에도 의료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후시딘이나 피부질환연고 등의 일반 연고가 없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아이 중에선 발에 티눈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에 티눈이 나면 피부과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전 그 아이에게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상처에 소독을 해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기도를 해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티눈 상처에 소독약이 들어가 따가워서 우는 아이를 보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옆에 머무르면서 계속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만달레이 땅의 그 천사 같은 영혼들을 떠올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에게 첫 선교였는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값진 경험들과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김 조 한

긴 비행시간과 사역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과 같은 곳을 갔지만,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는 여러 형태의 섬김을 보게 하셨습니다.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섬기는 모습, 교회를 정비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찾아와 당황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즐겁게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함께 힘썼던 분들과 한국에서 기도로 동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사역보고서

박지은

저는 지난 8월 21일부터 26일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은 13교구와 청년1부가 연합한 연합팀이었습니다. 교구팀 본단은 28일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지만 저희 청년1부팀은 25일에 사역을 마치고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하기 까지 오랜 이동시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역 시간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받은 은혜 또한 많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저희 청년1부팀과 교구팀이 사역을 떠나기 전 너무 적은 시간을 함께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 상 문제 때문에 팀모임 시간을 다르게 잡을 수 밖에 없었고, 사역 전에 함께 가진 팀모임은 두 번밖에 안됐습니다. 그 때문인지 사역을 준비하면서부터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할 때에 두 팀이 준비한 사역이 달라 스케줄이 달랐는데, 서로 스케줄에 대해 전달이 잘 안되어 화합이 잘 안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잘 채워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 든든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특히 기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 감 문

미안마7팀 - 신철민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선교였습니다. 선교에 비전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선교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안마 선교를 권유 받았고, 얼떨결에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심으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에 선교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부족했던 저였지만, 팀원들을 보며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미안마 땅으로 나아갔을 때, 2008년에 처음 갔던 선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열심으로 언어를 준비하고 축호전도를 나갔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 때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했지만 그만큼 준비를 하지 못했던 모습이 아쉽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밤을 새며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고 다음날 축호전도를 나가면서 권사님들의 열정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마음에 열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지 안았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7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 아이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흥회를 하며, 현지 뵤엘교회에 출석하시는 신도와 1대1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파우크 목사님을 통하여 저와 함께 있던 '마흐'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35살이었지만 50대 이상의 할머니 같았던 모습에서, 그 동안 살아왔던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국말로 기도를 했지만 그 마음은 전달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부흥회 이후에 마지막 어린이사역까지 마치며, 총 3일간의 어린이 사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끝냈다는 개운함보다는, 사역기간이 짧은 아쉬움과 미안마 땅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귀국하는 당일에 뵤엘교회에 마지막으로 들려 인사를 하고 어린이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배움을 해주며 손을 흔들어주었던 그 모습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었던 모습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영혼들을 잊을 수 없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를 통하여 제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켜주시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일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날이었지만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주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충현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1부 미얀마 7팀 전동환

이번 선교는 너무나도 느낀 것이 많은 선교였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하려고 해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의 힘을 한번 더 느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지체들이 기도제목을 물어보거나 꼭 기도하겠다는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현지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무사히 사역을 마칠 수 있었음은 보내는 선교사분들의 기도의 힘이 특별히 이번엔 더 커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많이 깨달아서 너무 좋았고 제가 제 안의 죄에 있어서 둔감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며 제가 집에서 자주 듣던 '진심이 아닌 전심으로' 라는 말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간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태도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진심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믿고 있다는 느낌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나는 진심은 있었지만 세상 속에서 전심으로 믿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남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음에 행복했고 자주 행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시간을 포함해서 1주일(7일)의 시간 중에서 4일을 비행기에서 보내게 되어 3일밖에 사역할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더했던 것은 3일차부터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모습이 너무나도 눈에 띄게 변했고 더욱더 열심히 저희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교회를 들렀는데, 떠나는 저희를 자동차 문 앞까지 와서 문을 닫지 못할 정도로 저희에게 손을 뻗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보입니다. 사역이 짧은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또 이번부터 계속해서 연합팀을 꾸려서 사역을 나가는데, 연합이면 연합답게 최소 팀 모임의 절반 이상은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서 따로따로 할 것이라면 연합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이 할 것이라면 서로서로 의견을 자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돌아온 선교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얀마선교 청년1부팀 소감문
청년1부 이에주

이번 미얀마 선교는 대학교 1학년때 몽골 단기선교 다녀오고 6년 만에 가게 된 단기선교였습니다. 그 전과는 다른 점들이 많아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도 대학생이 아닌 직장인으로서 청년1부 팀원들과 어린이사역을 준비해야 했고 우리뿐만이 아닌 13교구와 연합하여 함께 가는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준비해본 어린이사역은 준비할 때는 어려웠고 사역을 하게 된 당일에는 온갖 방해를 받았지만, 미얀마 어린이들이 밝은 웃음으로 찬양과 율동을 하며 저희를 바라볼 때는 무척이나 행복했고 이 아이들의 찬양이 꼭 하나님께 달기를 더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13교구와 함께하여 가장 좋았던 점은 박동진목사님, 파우크목사님과 미얀마 뽀엘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교가 90%인 미얀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성도들의 삶을 드러다 봤을 때 남들이 보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 내 모습 자체로 예배되고 전도되기를 소망하였는데 오히려 미얀마 성도들의 삶을 보고 저의 신앙을 더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미얀마 성도들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되어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미얀마에서의 하루하루를 지내며 하나님 안에서 희노애락을 느꼈던 저의 생각과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다녀옴으로 저에게 주신 선교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 뽀엘교회와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싶습니다.